

# KT&G 장학재단, 교육 소외계층 '상상장학생' 선발

# '협치'는 국회만의 몫인가

중·고교생 240명에 5억 2000만원 지원



상상장학생 모집 포스터. /KT&G

KT&G장학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교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중·고교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상장학생은 학업 지원이 필요한 중·고교생이 대상이며 중학생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고등학생 14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5억20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교육당국이 실시 중인 온라인 수업 등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지원하고자 태블릿 PC 등의 학습 도구 세트도 선분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교사가 대상 학생을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 접수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혜자가 결정되며, 결과는 오는 8월 14일 발표된다.

KT&G장학재단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KT&G가 지난 2008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저소득층 대학생 188명에게 총 7억5천여만원의 장학금과 태블릿 PC를 전달했고,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자녀 117명에게 총 1억2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08년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학생들은 5000여명에 달하며, 누적 교육지원금은 300억 원 규모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기자 수첩 최영훈 (정치경제부)

기가 없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축하와 여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할 수 있으면 좋련만...국민들은 가장 늦은 개원 연설을 2008년 7월 11일로 기억한다"며 에둘러 국회를 겨냥해 비판했다.

21대 국회가 열렸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기념 연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면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단독 원 구성'을 강행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다투는 사이에 개원 기념식 연설문을 무려 8번에 걸쳐 수정했다고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개원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긴 연설문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며 여야 갈등으로 크고 작은 내용까지 포함한 연설문 수정 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30분 이상 분량의 연설문이 지금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예정대로 6월 5일 개원식이 열리리라 생각했건만 한 달째 기

문 대통령이 개원 기념 연설을 하지 못하는 게 '국회' 때문일까. 민주당은 원 구성에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했다. 통합당이 3차 추경 처리 일정을 다소 늦출 경우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의면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문 대통령이 3일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통과하라고 하니, 그 하명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여야 갈등으로 문 대통령의 개원 기념 연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맞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고려했다면, 협치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이 야당에 먼저 손 내밀었다면, 국회 파행 가능성은 작아지지 않았을까. 마냥 '국회 타'를 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choiyoungkr@

## 롯데홈쇼핑, 직군별 핵심인재 키운다

미래 인재 육성 '인재사관학교' 운영

롯데홈쇼핑은 패션, 뷰티, 식품, DT(Digital Transformation) 등 주요 사업별 사내 핵심인재를 선발해 전문가 수준의 최고급 인재로 육성하는 '인재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사원부터 책임(과장)급 이하 실무진 중 인사고과, 임원 추천 등 다각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직군별 10명 이내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기관 협업, 국내 우수

대학 교수 초빙 통한 이론 교육 ▲시장 조사 및 분석 기반 신규 브랜드 제안 실습 ▲해외 박람회 참관, 세계적인 교육기관 수수료 통한 글로벌 벤치마킹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보유한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교수들이 산업 특성에 맞춰 기초 이론부터 시장조사 및 분석, 실습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서울



(왼쪽부터) 롯데홈쇼핑 박재홍 경영지원부장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김성민 학과장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홈쇼핑

대 등 국내 우수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오늘의 운세

7월 7일 (음 5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거 마련이다. **48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 **60년생**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라. **72년생** 신규 투자할 곳이 나타난다. **84년생** 남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
- 37년생**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자. **49년생**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 **61년생**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 **73년생** 일을 하던 중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중지. **85년생** 벗어나니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다.
- 38년생**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 **50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하면 좋다. **62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노려라. **74년생** 본질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피해라. **86년생** 떠돌았던 거품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는다.
- 39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니 행운이 가까이. **51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 **63년생**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 **75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지나가기. **87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 40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 **52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 활용을 잘 하기. **64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76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88년생** 상대를 배려하면 내가 존중 받는다.
- 4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니 기뻐할 수 없다. **53년생** 기대만큼 큰 성과가 있다. **65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 즐거운 하루. **77년생** 심한 운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89년생** 표정관리를 잘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다.

- 42년생** 주변 사람을 정성으로 대하라. **54년생** 창의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66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니 배우자에게 더 신경 쓰라. **78년생** 심년 목은 체증이 해소된다. **90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가 된다.
- 43년생** 자손의 건강과 행복이 나의 희망임을 명심. **55년생** 주변의 박 씨가 도움을 준다. **67년생** 이기적인 마음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79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라. **91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
- 44년생** 주변이 분담하니 외출을 자제. **56년생** 먼저 친한하고 용서하라. **68년생** 생 비가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은 필요 없다. **80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92년생**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임.
- 45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을 수 있다. **57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러운 넘어가자. **69년생** 동상 걸린 다리를 얼음물에 담그는 격. **81년생** 인수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93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
- 46년생** 타협이 해결책이니 인정하지 마라. **58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70년생** 새로운 만남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82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보자. **94년생**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 47년생** 원형을 금하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59년생** 결모양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라. **71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못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83년생** 부처질 한 이성관계로 망신수가 있다. **95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는 것이 좋다.



## 김상회의 4부부 갈등 해소

### 부부 갈등 해소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단어에 담긴 뜻 그대로라면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팔자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갈등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일부는 갈등을 넘어서 불화 수준이고 가정이 위기에 직면한 사례도 있다.

부부갈등을 유발할 만한 사주를 지닌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남자 사주의 일지가 기신이거나 총되면 부부 불화가 생긴다. 본인의 혼인궁과 배우자궁이 충돌하는 사주는 감정적인 갈등이 잦다. 여자 사주에서는 일지가 칠살인 경우에 불화가 생기고 진술이 공망되면 부부가 방을 따로 쓴다.

그러나 이렇게 사주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부부간에 서로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부부갈등에 관한 상담을 하며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이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명령하듯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의 부하 직원도 명령처럼 강하게 말하면 싫어하는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부탁하듯 청유형으로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로 뭘'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아픈지' 한 번쯤 물어봐 주는 게 우선 아닐까 싶다.

이런 방법들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는 사례들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정도 노력으로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들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문제출제: 손호성

### 정답

		5	6				3
		2					8
9	2		8			6	
		8		1		7	9
		1				4	
7	6	3		9		5	
	2			3			5
	8			2			
4			8	7			

			1		5	6	8		9		7
		4			1					C	6
		2		A	C	B		3			4
				B		C		4		5	
4			6	7			1			2	B
		C	9	3						A	
			8					2	C	6	
A	7				1		6	9			4
			3		A		8		B		
	B			2		9	C	7		8	
	C	A				1		3			
5			2		6	3	4		1		

6	9	2	L	8	L	S	E	7
L	B	E	Z	S	9	6	8	L
L	S	8	E	B	6	Z	L	9
Z	L	S	8	6	B	E	9	L
8	E	B	9	Z	L	L	6	S
9	6	L	S	L	E	8	B	Z
S	L	9	L	E	8	B	Z	6
B	8	L	6	Z	9	S	E	E
E	Z	6	B	9	S	Z	L	8

C	V	B	L	Z	B	E	9	8	Z	6	S
6	9	E	Z	L	8	S	Z	V	B	Z	C
S	8	B	Z	C	6	V	Z	E	9	B	L
Z	L	S	8	B	V	Z	E	9	6		
B	E	8	9	C	L	8	Z	L	S	V	
V	S	9	C	Z	E	L	6	B	L	8	
L	L	V	B	S	9	E	6	C	8	Z	
8	C	Z	8	V	L	6	Z	9	S	E	B
E	6	S	9	B	Z	C	8	B	L	V	Z
8	B	L	S	E	L	8	B	C	V	6	Z
9	8	C	E	6	V	Z	L	S	B	Z	8
L	Z	6	V	8	9	S	B	L	8	C	E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4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5호